

#소원하다 [疏 소통할 소 遠 멀 원] : 지내는 사이가 두텁지 아니하고 거리가 있어서 서먹서먹하다.

Ex) 허생의 처는 남편인 허생과 **소원해지면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 또한 느낄 수 없었던 것이다. 18 수능

[유의어]

1. 서먹하다 : 낮이 설거나 친하지 아니하여 어색하다.

Ex) 서로 낮이 익지 않아 **서먹함**을 느끼며 말없이 걷고 있는데 불쑥 이벽이 엉뚱한 질문을 했다. 출처 : 황인경, 소설 목민심서

2. 격조하다 [隔 사이 뜰 격 阻 막힐 조] : 멀리 떨어져 있어 서로 통하지 못하다.

Ex) 그 사람과는 오래 **격조하여**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

3. 열었다 : 좀 검연쩍고 부끄럽다.

Ex) 그는 하릴없이 앉아 있기가 **열없어서** 곁에 있던 잡지를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반의어]

1. 허물었다 : 서로 매우 친하며, 체면을 돌보거나 조심할 필요가 없다.

Ex) 이제 손님과는 험사리 의기가 투합해 버린 듯 **허물없는** 웃음으로 손님을 응대했다. 출처 : 이청준, 잔인한 도시

#개발 [啓 열 계 發 필 발] :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워 줌.

Ex) 동아리별 봉사 활동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개발한** 역량을 봉사 활동에서 발휘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성취 경험을 제공한다. 18 수능

[유의어]

1. 개발 [開 열 개 發 필 발] : 유용하게 만들. 발달/발전하게 함. 새로운 것을 내놓음.

Ex) 인류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개발**의 한계를 인식하여야 한다.

2. 계몽 [啓 열 계 蒙 어두울 몽] : 지식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침.

Ex) 글은 모름지기 사회의 모순을 파헤치고 국민을 옳은 길로 각성 내지는 **계몽**을 시켜야 된단 말씀이야. 출처 : 최인호, 무서운 복수

3. 개화 [開 열 개 化 될 화] : 사람의 지혜가 열려 새로운 사상, 문물, 제도 따위를 가지게 됨.

Ex) 내 비록 지금은 이렇게 숨어 있소만 내 조국의 **개화**를 위한 의욕은 여전하오. 출처 : 유주현, 대한 제국

[반의어]

1. 퇴보 [退 물러날 퇴 步 걸음 보] : 정도나 수준이 이제까지의 상태보다 뒤떨어지거나 못하게 됨.

Ex) 현대는 그 물질적 진보가 어떻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퇴보**의 시대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 함석헌, 역사와 민족

#교조적 [敎 가르칠 교 條 가지 조] :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인 듯 믿고 따르는. 또는 그런 것.

Ex) 현대 학자들은 근대 사상가들이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유의어]

1. 무비판적 [無 없을 무 批 비평할 비 判 판단할 판] :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또는 그런 것.

Ex) 외국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학문적 사대주의를 버리자.

2. 맹목적 [盲 눈 멀 맹 目 눈 목] : 주관이나 원칙이 없이 덮어놓고 행동하는. 또는 그런 것.

Ex) 그는 절대 권력 앞에 저처럼 저항하는 사내들의 **맹목적**인 도전은 이해할 수 없었다. 출처 : 최인호, 지구인

[반의어]

1. 타산적 [打 칠 타 算 셈 산] :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 헤아리는. 또는 그런 것.

Ex) 그는 자식들에 대한 애정도 극히 **타산적**인 인물이어서 같은 자녀 간에도 총이 많았다. 출처 : 이무영, 농민

2. 공리적 [功 공 공 利 이로울 리] :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의 공명과 이익을 먼저 생각하거나 추구하는. 또는 그런 것.

Ex) 농민들이 상업 내지 **공리적**으로 물들어 버린다면 뿌리가 썩어. 출처 : 박경리, 토지

#역연하다 [歷 지날 역 然 그럴 연] :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또렷하다.

Ex) 그네들도 어려서부터 가르쳐 준 이가 없어 이렇다 하게 내놓지 못하는 눈치가 **역연하던** 것이다. 18 수능

[유의어]

1. 또렷하다 : 엉클어지거나 흐리지 않고 분명하다.

Ex)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체모가 제대로 빠진 남아 하나를 얻었다. 출처 : 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2. 역력하다 [歷 지날 역 歷 지날 역] : 자취나 기미, 기억 따위가 환히 알 수 있게 또렷하다.

Ex) 원균은 갑자기 안색이 굳으면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출처 : 고정욱, 원균 그리고 원균

3. 여지없다 [餘 남을 여 地 땅 지] : 더 어찌할 나위가 없을 만큼 가차 없다. 또는 달리 어찌할 방법이나 가능성이 없다.

Ex) 그가 한번 한다고 했으면 **여지없을** 것이다.

[반의어]

1. 어슴푸레하다 : 뚜렷하게 보이거나 들리지 아니하고 희미하고 흐릿하다. 기억이나 의식이 분명하지 못하고 희미하다.

Ex) 방 안에는 불은 안 켜지만 **어슴푸레하게** 밝습니다. 출처 :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

#조응하다 [照 비칠 조 應 응할 응] : 둘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 또는 말과 글의 앞뒤 따위가 서로 일치하게 대응하다.

Ex) 사 씨의 꿈에서 예견된 인도자와의 인연이 '여승'의 꿈에서 계시된 바와 **조응하여** ... 18 수능

[유의어]

1. 대응하다 [對 대할 대 應 응할 응] :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취하다.

Ex) 생경한 그 이데올로기로선 변화무쌍한 현실에 **대응할** 수가 없고... 출처 : 이병주, 행복어 사전

2. 상응하다 [相 서로 상 應 응할 응] : 서로 응하거나 어울리다.

Ex)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 특정한 유행이 있었다면 그 유행에 **상응하는** 사회적 허용도 있었을 것이다. 출처 : 이문열, 시대와의 불화

3. 응수하다 [應 응할 응 酬 값을 수] : 상대편이 한 말이나 행동을 받아서 마주 응하다.

Ex) 법근이는 림기동의 주먹이 코앞에서 훑군거리건만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응수했다**. 출처 : 평양성 사람들, 조선말 대사전(1992)

[반의어]

1. 불일하다 [不 아닐 불 一 한 일] : 의견이나 생각 따위가 서로 어긋나서 꼭 맞지 아니하다. 한결같이 고르지 아니하다.

Ex) 이 책은 여러 사람이 필사해서 필체가 **불일하다**.

#야기되다 [惹 이끌 야 起 일어날 기] : 일이나 사건 따위가 일어나다.

Ex) 자연물의 본성적 운동은 외적 원인에 의해 **야기되기도** 한다. 18 수능

[유의어]

1. 발생하다 [發 필 발 生 날 생] :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나다.

Ex) 지난여름엔 큰비로 많은 수재민이 **발생했다**.

2. 발발하다 [勃 노할 발 發 필 발] : 전쟁이나 큰 사건 따위가 갑자기 일어나다.

Ex) 대원군은 동학란이 **발발한** 뒤 모든 뒷일을 이준용에게 넘긴 것이다. 출처 : 유현종, 들불

[반의어]

1. 억제되다 [抑 누를 억 制 억제할 제] : 정도나 한도를 넘어서 나아가려는 것이 억눌려 그치게 되다.

Ex) 그들은 경제적 독점을 실행하고 공업 농업 무역을 **억제하고** 모든 계층의 농토를 착취하고 있다. 출처 : 황석영, 무기의 그늘

2. 저해하다 [沮 막을 저 害 해할 해] : 막아서 못 하도록 해치다.

Ex) 지나친 자기만족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맹랑하다 [馘 만 맹 浪 물결 랑] : 생각하던 바와 달리 허망하다.

Ex) ... 이를두고 괴이하거나 맹랑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고 평한다. 18 수능

[유의어]

1. 아연하다 [啞 병어리 아 然 그럴 연] : 너무 놀라거나 어이가 없어서 또는 기가 막혀서 입을 딱 벌리고 말을 못 하는 상태이다.

Ex) 너무도 앞뒤가 맞지 않는 갑작스러운 반전이어서 명훈으로서는 그저 **아연할** 수밖에 없었다. 출처 : 이문열, 변경

2. 어리벙벙하다 : 정신이 얼떨떨하여 갈피를 잡지 못하다. '어리빙빙하다' 보다 센 느낌을 준다.

Ex) 그로서는 처음부터 엉뚱하였고, 도무지 어떻게 돌아가는 판세인지 **어리벙벙하였다**. 출처 : 이호철, 문

3. 어처구니없다 : 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는 듯하다.

Ex) 어쩌다 그 날은 그런 망발을 했는지 내가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으니**. 출처 : 이영치, 흐린 날 황야에서

[반의어]

1. 부듯하다 : 기쁨이나 감격이 마음에 가득 차서 벅차다.

Ex) 해석해 놓고 보면 신기할 것도 없는 말인데 원문으로 읽으면 무언가 단단하고 **부듯한** 느낌을 준다. 출처 : 최인훈, 회색인

#동원하다 [動 움직일 동 員 인원 원] :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사람을 모으거나 물건, 수단, 방법 따위를 집중하다.

Ex)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유의어]

1. 모집하다 [募 모을 모 集 모을 집] : 사람이나 작품, 물품 따위를 일정한 조건 아래 널리 알려 뽑아 모으다.

Ex) 정원이 모이면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다시 **모집하지** 않습니다. 출처 : 황석영, 장사의 꿈

2. 몰두하다 [沒 빠질 몰 頭 머리 두] : 어떤 일에 온 정신을 다 기울여 열중하다.

Ex) 형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출처 : 김용성, 도둑 일기

3. 공모하다 [公 공평할 공 募 모을 모] : 일반에게 널리 공개하여 모집하다.

Ex) 시명을 고치기로 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의 이름을 현상 **공모하였다**.

[반의어]

1. 동뎡이치다 : 하던 일을 딱 잘라 그만두다.

Ex) 그는 다니던 학교를 **동뎡이치고** 장사를 시작했다.

#회의 [懷 품을 회 疑 의심할 의] : 의심을 품음. 또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심.

Ex)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된 삶에 대한 **회의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18 수능

[유의어]

1. 의아 [疑 의심할 의 訝 의심할 아] : 의심스럽고 이상함.

Ex) 그의 표정에는 **의아한** 빛이 확연했다. 출처 : 황인경, 소설 목민심서

2. 의구 [疑 의심할 의 懼 두려워할 구] : 의심하고 두려워함.

Ex) 형남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다. 출처 : 서기원, 암사 지도

[반의어]

1. 신망 [信 믿을 신 望 바랄 망] : 믿고 기대함. 또는 그런 믿음과 덕망.

Ex) 신라의 젊은 청년들은 모두들 청년 장군인 유신 장군을 **신망하여** 모여들었다. 출처 : 홍효민, 신라 통일

2. 신빙 [信 믿을 신 憑 기댈 빙] : 믿어서 근거나 증거로 삼음.

Ex) 성인의 어머니에 대한 **신빙**이 이에 못할 수 없겠지요. 출처 : 김진섭, 인생 예찬

❖ 제재별 명품 어휘

#인문 part

- 동태 [動 움직일 동 태 모습 태] : 움직이거나 변하는 모습

= 시간의 흐름이 존재!

서사 / 과정 / 인과 등..

서사 敘 事

What?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음

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중심 화제의 성격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고대인들은 평상시에는 생존하기 위해 각자 노동에 힘쓰다가, 축제와 같은 특정 시기가 되면 함께 모여 신에게 제의를 올리며 놀이를 즐겼다. 노동은 신이 만든 자연을 인간이 신에게 유용하게 만드는 속된 과정이다. 이는 원래 자연의 모습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러한 죄를 씻기 위해 유용하게 만든 사물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집단적 놀이가 바로 제의였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유용한 사물을 희생물로 바치는 제의가 광범하게 나타났다. 바친 희생물은 더 이상 유용한 사물이 아니기에 신은 이를 받아들였다. 고대인들은 신에게 바친 제물을 함께 나누며 모두 같은 신에게 속해 있다는 연대감을 느꼈다.

고대 사회에서의 이러한 놀이는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동의 강도를 높이고 시간을 늘렸지만, 오히려 노동력이 소진되어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노동 시간을 축소하고 휴식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이 휴식 시간마저도 대부분 상품을 소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여행을 가려면 여행 상품을 구매하여 소비해야 한다. 이런 소비는 소비자에게는 놀이지만 여행사에는 돈을 버는 수단이다. 결국 소비자의 놀이가 자본주의 시대에 가장 유용한 사물인 자본을 판매자의 손 안에 가져다준다.

놀이가 상품 소비의 형식을 띠면서 놀이를 즐기는 방식도 변화한다. 과거의 놀이가 주로 직접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자본주의 사회의 놀이는 대개 참여가 아니라 구경이나 소비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생산자가 이미 특정한 방식으로 소비하도록 놀이 상품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여행의 예를 다시 들면, 여행사는 여러 가지 여행 상품을 마련해 놓고 있고 소비자는 이를 구매하여 수동적으로 소비한다. 놀이로서의 여행은 탐구하고 창조하기보다는 주어진 일정에 그저 몸을 맡기면 되는 그런 것이 되었다.

그런데 이른바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면서 놀이에 자발적으로 직접 참여하여 즐기자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성향은 비교적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하다. 젊은 세대는 놀이의 주체가 되려는 욕구가 크다. 인터넷은 그런 욕구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 준다. 인터넷의 주요 특성은 쌍방향성이다. 이는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 매체가 대다수의 사람들을 구경꾼으로 만들었던 것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거의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람들은 구경꾼이면서 참여자이며 수신자이자 송신자로 활동하며, 이러한 쌍방향적 활동 중에 참여자들 사이에 연대감이 형성된다.

❖ 제재별 명품 어휘

#인문 part

- 동태 [動 움직일 동 태 모습 태] : 움직이거나 변하는 모습
= 시간의 흐름이 존재!
서사 / 과정 / 인과 등..

과정 過_{지날}과 程_길정

일이 되어 가는 경로. *How?*

③ 중심 화제에 대한 이론이 후속 연구에 의해 보완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사람들은 함께 모여 ‘집합 의례’를 행한다. 뒤르켐은 오스트레일리아 부족들의 집합 의례를 공동체 결속의 관점에서 탐구한다. 부족 사람들은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생계 활동을 멈추고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聖)과 속(俗)의 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이 상황이 성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속된 것인지를 판별하는 집합 의례를 행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스러움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고 그것을 중심으로 약해진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재생한다. 집합 의례가 끝나면 부족 사람들은 가슴속에 성스러움을 품고 일상의 속된 세계로 되돌아간다. 이로써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에 불과했던 생계 활동이 성스러움과 연결된 도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뒤르켐은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가 기존 도덕 공동체의 재생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창출할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우애와 같은 새로운 성스러움을 창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구성한 집합 의례다. 뒤르켐은 새로 창출된 성스러움이 자기이해관계를 추구하며 속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서로 결속할 수 있는 도덕적 의미를 제공할 것이라 여긴다.

파슨스와 스멜서는 이러한 이론적 통찰을 기능주의 이론으로 구체화한다. 그들은 성스러움을 가치라는 말로 바꿔 표현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치가 평상시 사회적 삶 아래에 잠재되어 있다가, 그 도덕적 의미가 뿌리부터 뒤흔들리는 위기 시기에 위로 올라와 전국적으로 일반화된다. 속된 일상에서 사람들은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이해관계를 구체화한 목표와 이의 실현을 안내하는 규범에 따라 살아간다. 하지만 위기 시기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들의 특수한 이해관계에서 보편적인 가치로 상승한다. 사람들은 가치에 기대어 위기가 주는 심리적 긴장과 압박을 해소하는 집합 의례를 행한다. 그 결과 사회의 통합이 회복된다. 파슨스와 스멜서는 이것이 마치 유기체가 환경의 압박으로 인해 흐트러진 항상성의 기능을 생리 작용을 통해 회복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본다.

알렉산더는 파슨스와 스멜서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들이 사용한 생물학적 은유가 복잡한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를 탐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사회적 공연론’을 제시한다. 그는 가치를 전 사회로 일반화하는 집합 의례가 현대 사회에서는 유기체의 생리 작용처럼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과정이라고 본다. 현대사회는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이 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요소가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요소들을 융합하는 사회적 공연은 우발성이 극대화된 문화적 실천을 요구한다. 알렉산더가 기능주의 이론과 달리 공연의 요소들이 어떤 조건 아래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융합이 이루어지는지 경험적으로 세밀하게 탐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대 사회의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로는 성과 속의 분류 체계를 다양하게 구체화한 대본, 다양한 대본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행하는 배우, 계급, 출신 지역, 나이, 성별 등 내부적으로 분화된 관객, 시, 공간적으로 다양한 동선을 짜서 공연을 무대위에 올리는 미장센*, 시, 공간의 한계를 넘어 공연을 광범위한 관객에게 전파하는 상징적 생산 수단, 공연을 생산하고 배포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고도로 분화된 사회적 권력 등이 있다. 그러나 요소의 분화와 자율성이 없는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국가 권력에 의한 대중 동원만 있을 뿐 사회적 공연이 일어나기 어렵다.

❖ 제재별 명품 어휘

#인문 part

- 동태 [動 움직일 동 태 모습 태] : 움직이거나 변하는 모습
= 시간의 흐름이 존재!
서사 / 과정 / 인과 등..

인과 因인할 인 果열매 과

원인과 결과를 아울러 이르는 말. *Why?*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 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 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오르며,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와 같이 공개 시장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파급된다.

③ 공개 시장 운영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